출범 석달 '근심만 쌓여가는' 치매안심센터

실종·사망사고 잇따르는데 인력 태부족에 제역할 못해

광주·전남 1명당 치매환자 332명이나 관리…운영 한계

설 연휴인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 A(73)씨가 집을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밤샘수색을 펼쳤다.

A씨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에 집 밖으로 나가 실종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은 다음날 오전 9시 40분께 자택에서 1㎞ 떨어진 길거리에서 서성거리는 A씨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30분께에는 강진군 마량면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B(여·79)씨가 농수로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폭설이 내리던 전날 오후께 집을 나간 이후 길을 헤매다가 저체온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에서 치매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급증하고 있지만, 치매노인을 관리해야할 치매안심센터는 인력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개소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작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확보 등은 소홀히 하다 보니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각각 5개 자치구 보건소와 22개 시·군 보건소에 지난해 12월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문을 연 센터 206곳 대부분에서 필요한 인력과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센터는 공간이 마련되면 정식 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개소 3개월여를 맞이한 각 센터들이 아직까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간판만 치매안심센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 각 센터가 채용한 전담 인력(센터장·담당 공무원 제외)은 동구 5명·서구 6명·남구 5명·북구 5명·광산구 5명 등 총 26명이다.

직렬별로 간호사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1명이다.

광주시는 각 센터별로 최소 15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충한 인력은 최소 인력의 34.6%에 불과하다.

전남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남 22개 시·군 전담 인력은 170명으로 간호사 119명, 사회복지사 32명, 작업치료사 17명, 임상심리사 2명이지만, 전남도가 책정한 정원은 287명으로 61.9%만 충족하고 있다.

반면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광주 1만7780명, 전남 4만7328명으로, 센터 직원 1명당 관리 환자 수는 332.1명에 이를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센터는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 '가족지원' '인식개선·홍보' 등 5개 주요 프로그램 중 '상담·등록관리'팀만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센터 관계자들도 정부의 등떠밀기식 사업 추진에 대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 매뉴얼'에 기존에 없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주요 평가지표로 신설된 이후 센터 개소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매뉴얼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체 보건소 대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비율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광주의 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환자 전수조사와 필요 인력, 운영 프로그램 등 세부 계획부터 세워야 하는데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급하게 문을 열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전남은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다이빙대회가 아닙니다…대학 입학식입니다

광주 광산구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지난 2일 열린 남부대학교 입학식에서 광주시체육회 소속 다이빙 선수들이 식전 행사로 다이빙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근룡호 실종자 찾기 난항…수색범위 확대

지난달 28일 완도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근룡호(7.93t)의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5일째 이어졌다.

4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경 함정 27척, 해군 함정 1척, 관공선 9척, 민간어선 199척 등을 동원해 사고 주변 해역을 수색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먼바다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항공기 6대, 드론 2대 등 항공장비를 동원,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또 경찰과 군인, 민간인 총 324명을 투입해 해안 수색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 현재 추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근룡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8분 완도 청산도 남쪽 약 6㎞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으며, 선원 7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근룡호는 지난 3일 크레인 바지선에 실려 완도해경 전용부두에 도착, 접안을 마쳤다.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해난심판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준비 작업을 거쳐 선체 정밀수색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경찰, 민주당 광주시당 압수수색

당원 명부 유출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측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했다.

4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3일 오후 광주 서구 민주당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 단계상 압수수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 등을 활용하라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주당측에 컴퓨터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도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경찰은 당원 명부가 들어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를 복구하고 있으며, 복구에는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이 전 부위원장 명의로 수신자 실명을 언급하며 신규 당원을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일부 민주당원들은 이 전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횟집 여주인 흉기 찔려 부상

헤어진 전 동거남 추적

횟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께 여수시 신덕동 한 횟집에서 주인 김모(여·55)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9와 112 등에 접수됐다.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은 김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한 달 전 헤어진 동거남 고모(56)씨가 식당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고 해 거절했더니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안전사고로 20여일 투병 금호타이어 직원 숨져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이 20여일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직원 A(41)씨가 지난 1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10분께 공장 내 재단공정 기계에 한쪽 팔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A씨를 동료가 발견했다.

동료는 옆 공정에서 작업하다가 기계 이상 경보음을 듣고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단공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휴가 중인 동료를 대신해 현장작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규정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성폭행 피해 부부 무주서 잇따라 숨져

성폭행 피해로 법정싸움을 이어온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남편 A(38)씨가 끝내 숨졌다. 전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하루 만이다.

4일 유족들과 경찰에 따르면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3일 새벽 0시 28분께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 캐러밴에서 아내(34)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부부 옆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 빈 소주병과 유서가 발견됐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의 친구 B씨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틈을 타 A씨의 아내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폭행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경찰 "가수 정용화 입영 연기하려 대학원 부정입학"

쌍나팔

○…그룹 씨엔블루 보컬 정용화(29)가 군 입대를 미루기 위해 경희대학교 대학원 입시부정을 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와 논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씨가 입대를 한 달 앞둔 2016년 8월 26일 '박사과정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룬 직후 경희대 대학원에 지원한 것에 비춰볼 때 입영연기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경희대 이모 교수와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는 한편 경희대와 교육부에 수사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는 것.

○…5일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 보병사단 승리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현역으로 복무하는 정씨는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결과적으로 규정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중"이라면서도 "다만 입대를 연기하려고 박사과정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5007	1	목포시 석현로42, 101동 1층 108호 [석현동,광명샤인빌] 84.9241㎡	아파트	180,000,000 180,000,000	
2017타경 5953	1	목포시 포미로23, 107동 7층 701호 [용해동,포미타운주공1단지] 51.74㎡	아파트	123,000,000 123,000,000	
2017타경 6062	1	목포시 양을로41번길40, 8동 10층 1006호 [산정동,중앙하이츠아파트] 84.93㎡	아파트	101,000,000 101,000,000	
2017타경 6147	1	목포시 온남길25, 101동 7층 705호 [용해동,청산푸른아파트] 59.97㎡	아파트	61,000,000 61,000,000	
2017타경 6376	2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561, 3층 305호 [서호골드] 59.22㎡	아파트	30,000,000 30,000,000	현관문에3306호로 표기
2017타경 6420	1	목포시 원산중앙로87, 403동 2층 201호 [연산동,연산주공4단지아파트] 49.62㎡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17타경 6499	1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7-1 한라3차사원아파트 303동 2층 203호 60.00㎡	아파트	53,000,000 53,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6574	1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24-24 154㎡	대	72,598,320 72,598,320	일괄매각.최선순위설정일자보다빠른주민등록전입세대있음
		무안군 무안읍 하마안길 21-1 41.32㎡ 29㎡[현황별실] 제시외 가추 등 72.96㎡[제시외건물[가추2동,변소,주택]포함]	단독주택		
2017타경 6635	1	목포시 용당동 1135-3 183.1㎡	대	86,333,190 86,333,190	일괄매각
		목포시 산정로142번길 40 [용당동,1동] 20.21㎡ 부속건물 광1.65㎡	단독주택		
		동소 40 [2동] 52.89㎡ 부속건물 광3.42㎡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7타경 5878	1	목포시 죽교동 37-15 근우아트빌 비동 1층 115호 59.955㎡	다세대	60,000,000 60,000,000	
2017타경 6833	1	목포시 죽교동 580-13 우리빌리지 101동 4층 402호 74.515㎡	다세대	77,000,000 77,000,000	
2017타경 51086	1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80 222.6㎡	대	580,561,700 580,561,700	일괄매각.2017타경8273[중복]
		동소 2380 1층93.79㎡ 2,3층각127.03㎡ 4층96.01㎡ 제시외 다용도실 등 44㎡[제시외건물[다용도실2]매각포함]	다세대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4806	1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914-1 1450㎡[매각대상아닌비닐하우스,옹덩이,제시외건물4동[창고등,가축등,창고,변소]포함]	잡종지	149,348,500 149,348,500	일괄매각.건설폐기물에대해무안군에서행정처분명령사실있음
		동소 914-6 5517㎡[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2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산120 35702㎡	임야	99,965,600 99,965,600	내부임도개설되어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5151	1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2071-2 718.2㎡	대	787,119,600 787,119,600	일괄매각
		동소 2071-3 717㎡	대		
		동소 2071-4 707.9㎡	대		
		동소 2071-5 718.6㎡	대		
		동소 2071-6 722.2㎡	대		
		동소 2071-7 717.3㎡	대		
	2	동소 2071-12 684㎡	대	118,332,000 118,332,000	
	3	동소 2071-15 676.4㎡	대	117,017,200 117,017,200	
	4	동소 2072-3 718.3㎡	대	124,265,900 124,265,900	
	5	동소 2072-8 757㎡	대	645,624,200 645,624,200	일괄매각
		동소 2072-9 745.6㎡	대		
		동소 2072-10 770.5㎡	대		
		동소 2072-11 769.3㎡	대		
		동소 2072-12 734㎡	대		
	6	동소 2073 169.7㎡[매각대상아닌제시외이동식화장실소재]	대	27,661,100 27,661,100	
2017타경 5502	1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857-1 3388㎡	전	148,048,600 148,048,600	일괄매각.목록1~3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4연고미상분묘소재,접도구역저촉
		동소 857-2 2828㎡[접도구역저촉]	전		
		동소 857-3 3015㎡	전		
		동소 산56-8 2392㎡[현황묘지및일부전]	임야		
2017타경 6376	1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624-7 2365㎡[매각대상아닌제시외계사6개동및계사설비소재]	답	68,585,000 68,58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6635	2	목포시 용당동 1135-53 135.5㎡[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5동[주택,물치2동,보일러실,창고]소재]	대	55,961,500 55,961,500	
2017타경 6697	1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산137-7 1927㎡	임야	9,442,300 9,442,300	
[자동차,중기]					
2017타경 8396	1	사용본거지: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6번지 13호 등록번호:전남04나8349 기종:지게차 연식:2008	중기	34,400,000 34,400,000	보관장소:전남무안군일로읍지장리535번지
[기타]					
2017타경 4608	1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9-5 5284.4㎡	공장용지	1,451,692,440 1,451,692,4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물탱크실,보일러실]포함.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기계기구포함.목록3매각대상아닌기계기구[믹서,건조기2,운반기]소재.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기계기구[LPG탱크설비]소재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 137 [제에이동] 1498㎡ 제시외 물탱크실 등 16.7㎡,기계기구목록참조	공장		
		동소 137 [제비동] 477.04㎡ 53.76㎡	공장		
		동소 137 [제디동] 1층167.48㎡ 2층167.48㎡ 부속건물 사무실59.52㎡[물건번호1:[기계기구 7~11,22,23소재불명,18-2,18-3,24-3일부소재불명,13-1목록상cap:7.5HP이나현황cap:10HP, 4목록상1,450x1,500x2,200㎜H이나현황800x1,450x2,000㎜H]	생활관,사무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7타경 5304	1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47-24 5390㎡	잡종지	680,709,580 680,709,5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가추5동,창고2동,숙소,사무실].목록2공부상사무실이나현황주택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675 제1동 331.20㎡ 제2동 창고269.28㎡ 제3동 창고374.40㎡ 제4동 사무실86.40㎡ 제시외 창고 등 458.3㎡[물건번호1:이월드건설㈜로부터금104,263,093원유치권신고있음]	공장		
2017타경 6307	1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855-2 534㎡	대	735,779,280 735,779,2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주차장]포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828 1층62.2㎡ 음식점128.22㎡ 2~5층각190.42㎡ 지하1층보일러실49.68㎡ 제시외 주차장 168.0㎡	여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3. 1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3. 26.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인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김원태